**NEXT**foam

Open Source CFD Consulting



#### Two-Layer Realizable k- 순 난류모델 개발

<mark>길재흥</mark> 넥스트폼

# realizable k- 난류 모델

• 지배방정식

- *k*-equation

$$\frac{\partial(\rho k)}{\partial t}\nabla \cdot \left(\rho \vec{U}k\right) - \nabla \cdot \left\{ \left(\mu + \frac{\mu_t}{\sigma_k}\right)\nabla k \right\} = G_k - \rho\varepsilon \tag{1}$$

-  $\varepsilon$ -equation

• Realizable *k*-*ε* 모델은 standard *k*-*ε* 모델과 *ε*-equation의 생성항이 다름

$$\frac{\partial(\rho\varepsilon)}{\partial t}\nabla\cdot\left(\rho\vec{U}\varepsilon\right) - \nabla\cdot\left\{\left(\mu + \frac{\mu_t}{\sigma_{\varepsilon}}\right)\nabla\varepsilon\right\} = \rho C_1 S\varepsilon - \rho C_2 \frac{\varepsilon^2}{k + \sqrt{\nu\varepsilon}}$$
(2)

• 생성항 Coefficients

 $\sigma_{k} = 1.0, \sigma_{\varepsilon} = 1.2$   $C_{1} = max \left[ 0.43, \frac{\eta}{\eta+5} \right], \quad \eta = S \frac{k}{\varepsilon}, \quad S = \sqrt{2S_{ij}S_{ij}}$   $C_{2} = 1.9$ 



# realizable k- 난류 모델

- 난류점성계수
  - Model equation

$$\mu_t = \rho C_\mu \frac{k^2}{\varepsilon} \tag{3}$$

 $-C_{\mu}$ 

• Standard  $k - \varepsilon$  모델과 난류점성계수의 정의는 같지만  $C_{\mu}$ 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다름

$$C_{\mu} = \frac{1}{A_0 + A_S \frac{kU^*}{\varepsilon}} \tag{4}$$

•  $C_{\mu}$  Coefficients

$$A_{0} = 4.04$$

$$A_{S} = \sqrt{6}\cos\varphi, \quad \varphi = \frac{1}{3}\cos^{-1}(\sqrt{6}W), \quad W = \frac{S_{ij}S_{jk}S_{ki}}{\tilde{S}^{3}}, \quad \tilde{S} = \sqrt{S_{ij}S_{ij}}$$

$$U^{*} \equiv \sqrt{S_{ij}S_{ij} + \tilde{\Omega}_{ij}\tilde{\Omega}_{ij}}, \quad \tilde{\Omega}_{ij} = \Omega_{ij} - 2\epsilon_{ijk}\omega_{k}, \quad \Omega_{ij} = \bar{\Omega}_{ij} - \epsilon_{ijk}\omega_{k}$$

- $\overline{\Omega}_{ij}$ : mean rotation rate viewed in rotating reference frame
- $\omega_k$ : angular velocity of rotating reference frame
- $\epsilon_{ijk}$  : Levi-Civita symbol
- $2\epsilon_{ijk}\omega_k$ : Omitted in OpenFOAM(not compatible with MRF or Sliding Mesh)



### Realizable k- E 난류 모델

- 특징
  - Standard *k*-ε 모델에 비해 jet 유동의 spreading rate를 잘 예측
  - 유동박리(separation) 또는 역압력구배(adverse pressure gradient)가 존재하는
     경계층 유동을 더 잘 예측
  - 회전(Rotation), 재순환(recirculation) 유동을 더 잘 예측

- 한계
  - Standard k-ɛ 모델과 마찬가지로 High-Re 난류 유동에 적용되는 모델이므로
     벽면 근처의 유동을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음



# **Realizable** *k*-ε 난류 모델의 한계

- The Universal Law of The Wall
  - 압력구배가 없는 경계층내의 속도분포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 된다.





## **Realizable** *k*-ε 난류 모델의 한계

- 벽근처 첫번째 격자의 높이(y<sup>+</sup>)에 따른 속도분포 계산
  - 첫번째 격자의 y+가 30 미만인 격자계에서는 속도분포를 올바르게

예측할 수 없음



## Two-Layer Realizable k-ε 난류 모델

- y<sup>+</sup>가 30 미만인 격자계에서 경계층 내의 속도분포를 올바르게 예측할수 없는 Realizable k-ε 모델에 대한 개선 모델
- 경계층을 높이방향으로 두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적절한
   난류모델을 적용는 방식
  - 대표적인 상용코드(STAR-CCM+, FLUENT 등)에 구현되어 있음
  - Standard OpenFOAM에는 구현되어 있지 않음



# Two-Layer Realizable k-ε 난류 모델

• Two-Layer formulation

- 경계층을 
$$Re_y \left(=\frac{y\sqrt{k}}{v}\right)$$
를 기준으로 두 층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난류모델  
적용





## Two-Layer Realizable k-ε 난류 모델

- Wolfstein Two-Layer Model
  - 부력이 지배적이지 않은 유동에 적합
  - 대표적인 상용코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

$$- Re_y^* (Re_y = 60 \sim 200) 를 기준$$





- 지배방정식
  - *Re<sub>y</sub>* > *Re<sup>\*</sup><sub>y</sub>* 일 경우
    - Realizable *k*-ε 모델의 지배방정식 사용 (식 (1) 및 식 (2))
  - $Re_y < Re_y^*$ 일경우
    - *k*-equation
      - Realizable *k*-*ɛ* 모델의 *k*-equation 과 동일 (식 (1))
    - ε-equation
      - Algebraic relation with k using length scale function  $l_{\varepsilon}$

$$\boldsymbol{\varepsilon} = \frac{\boldsymbol{k}^{3/2}}{\boldsymbol{l}_{\varepsilon}}$$
(5)  
$$\boldsymbol{l}_{\varepsilon} = \boldsymbol{y} C_{l}^{*} [1 - e^{-Re_{y}/A_{\varepsilon}}]$$
  
$$\boldsymbol{C}_{l}^{*} = \kappa C_{\mu}^{-3/4}, \quad A_{\varepsilon} = 2C_{l}^{*}$$



- 난류점성계수
  - $Re_y > Re_y^*$ 일경우
    - Realizable *k*-ε 모델의 난류점성계수 모델식을 사용 (식 (3))
  - $Re_y < Re_y^*$ 일경우
    - Algebraic relation with k using length scale function  $l_{\mu}$

$$\mu_{t} = \rho C_{\mu} l_{\mu} \sqrt{k}$$

$$l_{\mu} = y C_{l}^{*} [1 - e^{-Re_{y}/A_{\mu}}]$$

$$C_{l}^{*} = \kappa C_{\mu}^{-3/4}, \quad A_{\mu} = 70$$
(6)



- $\varepsilon \ \downarrow \mu_t \ \supseteq$  blending
  - Re<sup>\*</sup><sub>y</sub> 의 경계에서 갑작스런 해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blending 필요



– Blending factor,  $\lambda$ 

$$\lambda = \frac{1}{2} \left[ 1 + \tanh\left(\frac{Re_y - Re_y^*}{A}\right) \right]$$
$$A = \frac{|\Delta Re_y|}{\tanh^{-1}(0.98)}, \quad |\Delta Re_y| = 3 \sim 40$$



- Blending factor를 적용하여 표현한  $\mu_t$ 
  - 난류점성계수 (μ<sub>t</sub>) 는 k 와 ε 에 대한 선형대수 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해를 이용하여
     계산 되기 때문에 해석 영역의 모든 격자에서 아래와 같은 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면
     된다.

$$\mu_t = \lambda \mu_t^{realizable} + (1 - \lambda) \mu_t^{algebraic}$$

- Blending factor를 적용하여 표현한 *ε*
  - 이산화한 방정식 레벨의 blending
    - ε 의 경우는 선형대수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지는 값이므로 선행대수 방정식으로 구성되는 행렬의 모든 요소에 blending factor를 적용하여 표현해야 한다.



#### **Discretization of Blended** $\varepsilon$ **-equation**

• *Re<sub>y</sub>* > *Re*<sup>\*</sup><sub>y</sub> 일 경우

$$\frac{a_P}{\alpha}\varepsilon_P^* + \sum_N a_N \varepsilon_N^* = b + \frac{1-\alpha}{\alpha}a_P \varepsilon_P^{n-1}$$
(7)

- $a_P$  : diagonal coefficient of discretize equation
- $a_N$  : off-diagonal coefficient of discretize equation
- *b* : source vector component of discretize equation
- $\alpha$  : under-relaxation factor
- $\varepsilon_P^*, \varepsilon_N^*$  : solution on current iteration for cell **P** and it's neighbour **N**
- $\varepsilon_P^{n-1}$  : solution on previous iteration for cell **P**
- *Re<sub>y</sub>* < *Re<sup>\*</sup><sub>y</sub>* 일 경우

$$\boldsymbol{\varepsilon}_{\boldsymbol{P}}^{*} = \boldsymbol{\alpha} \left( \boldsymbol{\varepsilon}_{\boldsymbol{P}}^{s} - \boldsymbol{\varepsilon}_{\boldsymbol{P}}^{n-1} \right) + \boldsymbol{\varepsilon}_{\boldsymbol{P}}^{n-1} \tag{8}$$

$$\varepsilon_P^s = \frac{k^{3/2}}{l_{\varepsilon}}$$
: algebraic relation with current solution of k



#### **Discretization of Blended** $\varepsilon$ **-equation**

• 식(7)과 식(8)로부터

$$\varepsilon_P^{realizable} = \frac{\alpha}{a_P} \left( b + \frac{1-\alpha}{\alpha} a_P \varepsilon_P^{n-1} - \sum_N a_N \varepsilon_N^* \right)$$
(9)

$$\boldsymbol{\varepsilon}_{P}^{algebraic} = \boldsymbol{\alpha} \left( \boldsymbol{\varepsilon}_{P}^{s} - \boldsymbol{\varepsilon}_{P}^{n-1} \right) + \boldsymbol{\varepsilon}_{P}^{n-1} \tag{10}$$

- Blending factor,  $\lambda$  를 이용해 식(9)와 식(10)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고,

$$\varepsilon_P^* = \lambda \varepsilon_P^{realizable} + (1 - \lambda) \varepsilon_P^{algebraic}$$

$$=\lambda\left[\frac{\alpha}{a_P}\left(b+\frac{1-\alpha}{\alpha}a_P\varepsilon_P^{n-1}-\sum_N a_N\varepsilon_N^*\right)\right]+(1-\lambda)[\alpha(\varepsilon_P^s-\varepsilon_P^{n-1})+\varepsilon_P^{n-1}]$$

- 위의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blended *ε*-equation 의 이산화된 식을 얻을 수 있다.

$$\frac{a_P}{\alpha}\varepsilon_P^* + \lambda \sum_N a_N \varepsilon_N^* = \lambda \left( b + \frac{1-\alpha}{\alpha} a_P \varepsilon_P^{n-1} \right) + (1-\lambda)a_P \left( \varepsilon_P^s + \frac{1-\alpha}{\alpha} \varepsilon_P^{n-1} \right)$$
(11)



Slide 15

- Realizable *k*-*ɛ* 난류모델의 소스코드
  - 식 (7)과 같은 형태로 *ɛ*-equation 을 이산화 하는 코드

```
// Dissipation equation
tmp<fvScalarMatrix> epsEqn
(
    fvm::ddt(alpha, rho, epsilon_)
    + fvm::div(alphaRhoPhi, epsilon_)
    - fvm::laplacian(alpha*rho*DepsilonEff(), epsilon_)
==
    C1*alpha*rho*magS*epsilon_
    - fvm::Sp
    (
        C2_*alpha*rho*epsilon_/(k_ + sqrt(this->nu()*epsilon_)),
        epsilon_
        )
    + epsilonSource()
    + fvOptions(alpha, rho, epsilon_)
);
epsEqn.ref().relax();
```





- Realizable k- E 난류모델의 소스코드를 활용
  - 식 (11)과 같은 형태로 *ɛ*-equation 을 이산화 하기 위해 이산화
     함수들(fvm::ddt, fvm::div, fvm::laplacian 등)을 재정의 하기
     보다는 식 (7)의 형태로 이산화해서 얻은 행렬시스템의 요소들을 식 (11)의
     형태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구현



- Two-Layer Realizable k- E 모델이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벽면 경계조건도 적절하게 구현되어야 한다.
  - 운동량보존 방정식에 대한 벽면 경계조건
  - k-equation 에 대한 벽면 경계조건
  - *ɛ*-equation 에 대한 벽면 경계조건



- 운동량보존 방정식에 대한 벽면 경계조건
  - 확산항 이산화에 의해 벽면 격자에 momentum source로 작용
    - 층류유동이거나 벽면 격자가 점성저층(viscous sublayer) 안에 있을 경우에는 noslip 조건 이외에 별도의 경계조건 처리가 필요하지 않음





- 운동량보존 방정식에 대한 벽면 경계조건
  - 난류 유동에서 벽면 격자가 점성저층보다 위에 있을 경우
    - $\tau_w = (\mu + \mu_t)_w \left(\frac{du}{dy}\right)_w$ 의 식이 성립하지 않음
    - 이 경우 확산항 이산화에 의해서 벽면 격자에 올바른 momentum source가
       적용되기 위해서는 벽면 격자에 한해서만 이산화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미 이산화
       된 행렬시스템에서 벽면 격자에 적용된 생성항을 수정해야 함
  - OpenFOAM에서는 운동량 보존방정식의 이산화 과정에서 벽면 격자에서만
    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벽면의 난류점성계수
     (μ<sub>t</sub>)<sub>w</sub> 를 정의하여 사용
    - (μ<sub>t</sub>)<sub>w</sub> 는 운동량보존방정식에 대한 경계조건을 부여하는 수치적 방법일 뿐 물리적인 의미는 없음



- 운동량보존 방정식에 대한 벽면 경계조건
  - Spalding's formula
    - Viscous-sublayer, buffer-layer 및 log-layer의 속도분포를 하나의 식으로 통합

$$y^{+} = u^{+} + \frac{1}{E} \left[ e^{\kappa u^{+}} - 1 - \kappa u^{+} - \frac{(\kappa u^{+})^{2}}{2} - \frac{(\kappa u^{+})^{3}}{6} \right]$$

$$\implies y = \frac{\nu u}{u_{\tau}^{2}} + \frac{\nu}{u_{\tau}E} \left[ e^{\kappa u/u_{\tau}} - 1 - \frac{\kappa u}{u_{\tau}} - \frac{1}{2} \left( \frac{\kappa u}{u_{\tau}} \right)^{2} - \frac{1}{6} \left( \frac{\kappa u}{u_{\tau}} \right)^{3} \right]$$
(12)

• 위의 식에서 Newton-Raphson method를 이용해  $u_{\tau}$ 를 구하면 확산항 이산화에 의해 표현된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 $(\mu_t)_w$ 를 표현할 수 있다.

$$\tau_{w} = \rho u_{\tau}^{2} = (\mu + \mu_{t})_{w} \left(\frac{du}{dy}\right)_{w}$$
$$\therefore \quad (\mu_{t})_{w} = \frac{\rho u_{\tau}^{2}}{\left(\frac{du}{dy}\right)_{w}} - (\mu)_{w} \quad or \quad (\mathbf{v}_{t})_{w} = \frac{u_{\tau}^{2}}{\left(\frac{du}{dy}\right)_{w}} - (\mathbf{v})_{w}$$



- k-equation 에 대한 벽면 경계조건
  - 난류 유동에서 벽면 격자가 점성저층보다 위에 있을 경우
    - 벽면 격자에서 *k*-equation 의 생성항,  $G_k = \mu_t S^2$ , 의 식이 성립하지 않음
    - 벽면에 대한 경계조건을 zero-gradient 로 적용하여 *k*-equation 을 이산화 한 후 벽면 격자에 해당하는 생성항 요소를 다음과 같이 수정

$$G_k = g\mu_t S^2 + (1-g)\rho u_\tau^2 \frac{\partial u}{\partial y}$$

where 
$$g = exp\left(-\frac{Re_y}{11}\right)$$

- *ε*-equation 에 대한 벽면 경계조건
  - 난류 유동에서 벽면 격자가 점성저층보다 위에 있을 경우
    - 벽면에 대한 경계조건을 zero-gradient 로 적용하여 *ε*-equation 을 이산화 한 후 벽면 격자에 해당하는 행렬요소의 값을 다음 식과 같이 수정
      - 행렬시스템을 inversion하여 해를 구하여도 벽면 격자에 해당하는 해는 아래 식으로 주어진 값을 유지하도록 함

$$arepsilon_P = g \, rac{2 
u k}{y^2} + rac{k^{3/2}}{l_arepsilon}$$



#### **Results**

 개발된 Two-Layer Realizable k-ε 난류모델을 이용한 벽근처 첫번째 격자의 높이(y<sup>+</sup>)에 따른 속도분포 계산 검증
 - y<sup>+</sup> 30 미만의 격자에서도 속도분포를 적절히 예측함을 확인



평판 위를 흐르는 난류 유동에 대한 OpenFOAM 해석 결과